

광주매일신문



kjdaily.com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음력 10월 25일) 제881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착공 1년 지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늦어지면서 차질 불가피 320억원 투입 이달 착공 계획→내년 7월로 연기 해수부 "최대한 공기 단축 2026년 말 준공 최선"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안군 에 조성될 예정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착공이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 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 될 전망이다.

안군 압해읍 일원에 조성되는 갯벌 세

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생태조사, 교육정 책 수립, 보전활용 및 대내외 협력사업 등 갯벌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통합관 리 역할을 수행할 정부 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31일 유네스 24일 전남도·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 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전남 신안, 보성·순천, 충남 서천, 전북 고창)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함에 따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설치 하기로 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 산 면적은 총 1천284.11㎢다. 신안군이 1 천100.86㎢로 전체의 85.5%를 차지한다.

신안군은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공모에서 전 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을 제치고 건 립지로 선정됐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국비 32 0억원을 투입해 신안군 부지 5만406㎡ 에 연면적 8천20㎡ 규모로 건립된다. 202 3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설계 후 올해 11

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개관은 2027년 1월로 계획됐다.

해수부는 2022년 12월 실시설계비 20 억원을 확보하고 2023년 11월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1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마무리할 예정이었 던 실시설계 용역이 조달청의 설계 적 정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 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보전원 착공 역 시내년 7월로 1년 가까이 늦춰졌다.

설계 과정에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각 과업별로 조달청의 적

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나 전국 공공시 설의 적정성 검토 의뢰가 잇따르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

현재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중 간설계 적정성 검토까지 마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 는 국고보조사업 30억원 이상의 공공시 설 공사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설계 내 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용역

을 마친 뒤 7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1년6개월 정도로 당초 계획한 준공일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설계 용역과 인허가 절차 과 정 중 하나라도 늦어질 경우 준공 기일 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달청의 설 계 적정성 검토 과정이 늦어져 착공 지 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계획 일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을다하겠다"고밝혔다. /양시원기자

'통합의대' 설립 추천서 제출

전남도, 2026학년도개교정원신속배정등건의…정부논의주목

전남도가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무 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으로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했다.

특히 전남도가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정 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정부의 후속 논의 과정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 명의의 추천서 에서 "전남은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지난 30여년 간온도민이한마음으로의대설립을간 절히 염원하며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각 고의노력을기울여왔다"고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올해 3월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 도에 대학 선정을 요청하면서 의대 설 립의 길이 열렸다"며 "정부 요청에 따 라 거점 국립대인 국립목포대와 국립 순천대, 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며 최적의 의과대학 설립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여러 논의 끝에 지난 11 월15일 양 대학이 지역 상생·화합을 통

해 미래 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부 1 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교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 학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 다"고 통합의대 추진 의미를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남도 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양 대학이 통 합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 진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대학 통합 합의 에 따라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 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추천한다"며 "2 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이 개 교되도록 정부에서 절차를 신속히 추 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의 정부 추천에 따라 국립목포 대와 국립순천대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 가원에 오는 29일까지 예비인증을 신청 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 합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오는 26일 도청에서 더 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면담에 이 어, 27-28일엔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찾 아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을 건의하고 지 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화합의 단체 줄넘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인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북구종합운동장과 보라매축구장 등 4개 경기장에서 5개 자치구 생활체육 동호인, 다문 화 가족 등 시민 1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3-24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펼쳐진 단체 줄넘기 부문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시장 질문 제한' 지침 전략추진단장 교체

광주시가 공공기관 현장대화 과정에 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으로 물의를 빚 은전략추진단장을 징계성 교체했다.

광주시는 24일 "공공기관 현장대화 총괄 부서인 전략추진단 단장의 책임 을 물어 무보직 하향 전보인사를 지난 22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후임 전략추진단장으로 윤 미라 서기관을 임명해 인적쇄신과 함

앞서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강기정 시 장의공공기관순회간담회를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간담회 기간 내부 연락망을 통 해 전략추진단이 만든 주의사항, 사실 상 '지침'을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광주FC, 무등산, 육아 관련

내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적시했다. 또한 증원·보수·청사 이전 등 건의 사항은 행사가 끝난 뒤 별도로 취합해 보고한다며 간담회에서 '절대 언급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 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 전 검토 안된 내용'도 질문해선 안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확 산되자 강기정 시장은 지난 21일 광주 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시장

의전'이라는 꼬리가 '직원과의 허심탄 회한 대화'라는 몸통을 뒤흔든 일이다.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시 장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든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수희 기자

/김애리기자

Today

발주공사지연속출…소송까지도 3면 노벨상기념'공상의방'조성무산 6면 쌀소비 촉진…해남삼산주조장 12면



+